



2026 대각성전도집회 특별 구역모임

REST:내 영혼의 따뜻한 집을 찾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28

보물찾기

마태복음 13:44~46

- 44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 45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 46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마음의 문을 열며

어릴 적 재미있는 추억을 꼽으라면 그중 하나가 보물찾기일 것입니다. 교실을 떠나 야외에서 진행되는 소풍에서 보물찾기는 즐거움이 가득한 놀이였습니다. 어린 시절의 보물찾기는 보물의 내용만 달리할 뿐,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이어집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보물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명성,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이 그가 찾는 보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의 비유 말씀을 통해 인생의 보물찾기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진정한 보화가 무엇인지, 그 보화를 가졌을 때 어떤 것이 주어지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삶의 진정한 보화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보화로 인한 기쁨의 주인공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씨를 뿌리며

1.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며 보물과 관련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와 ‘극히 값진 진주 비유’입니다. 두 비유의 유사성으로 인해 ‘쌍둥이 비유’로 불리기도 하는데 둘 사이에 차이점도 있습니다. 각 비유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 비슷한 부분

– 발견한 것:

– 발견 후 반응:

• 다른 부분

– 보물을 발견하는 과정:

2. 본문에 등장하는 농부와 상인이 보물을 발견하게 된 계기에 의도성이 있든 없든 간에, 발견한 이후 자신의 모든 소유를 처분한 것은 동일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44절

• 빌 3:7~9

.....

.....

.....

3.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 이 보물을 찾은 사람이고, 이 보배를 가슴에 담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에게 보배를 품은 자로서의 삶의 기쁨이 있습니까? 또한 이 기쁨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어 보세요.

• 요 16:22

.....

.....

.....

• 고후 4:7

.....

.....

.....

4. 다음 글을 읽고 인생의 보물을 찾은 로렌스 형제가 누렸던 풍성한 삶의 비결에 대해서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로렌스 형제가 있습니다. 그는 평범한 수도사로서 수도원에서 늘 허드렛일만 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만들고, 청소하는 일을 하였으며 다리를 다친 후에는 음식 만드는 것 대신 수도사들의 구두 수선하는 일을 했습니다.

구두 수선이나 설거지는 누구도 원치 않는 하찮은 일이었지만, 로렌스 형제에게는 달랐습니다. 인생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그의 일상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기쁨의 동행이었습니다. 남들이 기피하는 하찮게 보이는 일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통치를 이루는 보화로 여겼습니다. 그는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구두 수선과 설거지 같은 허드렛일조차 하나님의 임재 속에 일함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신앙의 본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보석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5.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 기준이 달라집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현재적 통치와 임재로 인한 다른 차원의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밖에는 우리가 발견한 인생의 진정한 보물을 발견하지 못한 채, 세상이 주는 가짜 보물을 쫓아 살아가는 이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대각성전도집회는 이들에게 진짜 보화를 소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당신 주위에 이 보화가 필요한 이들을 생각해 보고,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지 적용해 봅시다.



삶의 열매를 거두며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이며, 탁월한 문학 작품을 남겼던 C. S. 루이스는 그의 저서 『나니아 연대기』의 마지막 전투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드신 세상으로 귀향하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부터 진짜 얘기가 시작된다. 이전까지 경험했던 모든 삶과 모험은 표지와 제목이었을 뿐이다. 앞으로 새롭게 펼쳐질 각 장은 진짜 이야기가 될 것이다.”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고백도 이와 동일합니다. 모든 인생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 보화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 자들도 새생명의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도록 보화의 비밀을 소개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존귀한 복음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28